

생명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감사하며 사랑하여라

본 문 : 시편 23편 4-6절
요나 2장 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요한복음 8장 29절
참고 성구 : 창세기 19장 17절
사무엘상 25장 29절
욥기 11장 17절
시편 56편 13절
시편 54편 4절
잠언 19장 23절
예레미야 39장 18절

<전초>

1.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에게 ‘사명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그 길로 반드시 행하신다.
2.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매우 커진다는 것이다. 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주의 함께하심’이 커지고 ‘삼위가 주시는 것’도 아주 남달라진다는 것이다.
3.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때에 맞고 합당한 말씀이다.
4. 이 말씀은 모두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자기 나라’에 해당되는 생명의 말씀이다.

5.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 “깨달아라.” 함이고

둘째, “깨달았으면 행하라.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라.” 함이다.

6. 생명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감사하며 사랑하여라. 자기 생명, 육신도 마음도 영도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서 섭리사도 나라도 지켜주셨다.

<말씀 시작>

7. 섭리 역사는 지금 70개국의 나라가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전하는 선생 역시 늘 ‘그 많은 무리가 큰 장소에 한 눈에 보이게 모여 있다’고 보면서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과 성령도 “늘 이를 인식하며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셨다. 듣는 자들도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듣는다, 몇 명에서 듣는다.’ 하는 인식을 짝 버려야 된다. 자기 혼자가 아니고, 섭리인 6-7만 명이 같이 듣고 있고, 천사들도 30억에서 100억씩 같이 듣고 있으니 이를 늘 명심하고 인식하고 들어라.

8.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TV로 연결시켜 <큰 화면>으로 드러야 된다. 작은 화면으로 드리면, 알아보게 은혜가 덜하고 감동이 덜하기 때문이다.

9. 미리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한 자들은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경제도 영도 육적 건강도 말씀을 듣는 이때 낮게 해준다. 지금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니라. <말씀 듣는 상태>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10. 지난주는 섭리사 ‘알파절’ 주간이었고, 한국은 민족수호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로 정한 주간이었다. 6월 1일 알파절이 얼마나 귀하느냐. 성경에서 ‘2천년 동안 기다린 그 날’이 ‘그 날’이었다.

11.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도 가나마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시작을 정확하게 온전한 말

숨을 선포하고 온전하게 행해야 끝도 그 사람 것이다. “